

간호 이미지에 대한 논문분석

김 정 아* · 이 순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떤 직업이나 직종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고유한 지식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의 발전은 전문직의 독단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그 전문직의 기여를 인정하고 요구할 때 비로소 전문직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발전은 간호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와 인식이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임미림 1995).

사회의 발전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에 따른 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조기퇴원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용 효과 면에서나 역할 면에서 적절한 간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호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일반 대중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도움을 간호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정면숙 & 강영실 1993). 오늘날 간호사들은 전문직 영역에서 직접 간호를 통한 환자의 건강치료와 회복을 돕고 간호

교육을 하여 대상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병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산업장, 학교에서는 건강상담을 통한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간호연구를 통하여 보다 유용한 간호처방을 산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은 간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변화하는 간호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실제 간호가 갖는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비해 상당히 편향되고 축소된 인식을 하고 있음은 물론, 간호사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면숙 & 강영실 1993, 임미림 1995, 양일심 1998). 즉 간호 이미지, 또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축소·왜곡된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에 대해 왜곡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간호교육이나 실무의 영역, 건강관리 체계나 사회 속에서 간호사들의 위상, 역할 등에 관한 잘못된 지식과 갈등을 주기가 쉽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의료소비자나 간호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절한 역할에 맞는 적정인력의 활용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정면숙 & 강영실 1993). 간호전문직이 명실공히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힘을 지닌 전문직 단체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간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국립청주과학대학 간호과 부교수

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양일심 1998). 따라서 간호사 자신은 물론, 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전문인들, 그리고 일반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 이미지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형성된 간호 이미지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강혜영 외 2001), 국내에서는 대개의 논문들이 1990년대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앞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는 개별연구도 중요하나 간호 이미지에 대한 개별논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현실점에서 선행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요약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간호연구 논문의 분석이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로 학위논문이나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특성, 연구장소와 연구대상자, 주요개념, 연구설계의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의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간호연구의 현황이나 동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 구체적인 특정한 개념에 대한 논문의 분석이 근래에 이르러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개념에 대한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이명하 1996). 따라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간호 이미지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과거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가져야 함은 물론, 앞으로는 어떠한 연구가 새로이 또는 반복하여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된 간호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요약·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이미지

이미지는 한 대상에 대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

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이다(Kotler & Clarke 1987). 이미지란 용어는 195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심리학, 정신분석학, 실험심리학, 예술론, 커뮤니케이션론 등의 여러 영역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김민정 2000).

윤은자(1996)는 선행연구와 관련문헌들에 서술된 이미지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평가로 감정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서성을 포함한 주관적 평가의 속성을 갖고 있다. 둘째, 이미지는 대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나 상징에 따라서 연상되는 관념으로서 언어적 속성을 지닌다. 셋째, 이미지는 개인의 내적인 정신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별적 독자성을 갖는다. 넷째, 이미지는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그에 관한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시대 그 사회의 일원과 높은 공통성을 갖는다. 다섯째, 이미지는 사회상호작용을 통한 경험(학습)과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변화성을 갖는다. 여섯째, 형성된 이미지는 행동성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는 여과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좋은 이미지로 인지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며,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이행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 사람이 갖게 되는 인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상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파악하는 정도 및 방향과 자신과 관련한 생각, 느낌 등의 총체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며 이 같은 총체적 요소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인간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자극에 대처해 가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각, 사고, 경험과 학습, 정보, 감정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개인이 선호도를 결정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2. 간호 이미지

간호 이미지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Beliefs), 생각(Ideas), 관념(Impressions)의 총합으로서,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이다(Kotler & Clarke 1987, 윤은자

1995).

전술한 대로, 개인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하는 '이미지'는 개인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의사결정과 행동전반을 지배하게 되므로, 간호 또는 간호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경우, 이는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삶과 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Kalisch & Salisch 1987, Mendez & Louis 1991). 바람직한 이상형의 간호 이미지 개발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에 대해 그들이 만족함과 동시에, 전문직 간호사 또한 직업적 만족을 얻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것이다(윤은자 1996).

전통적으로 간호의 이미지는 '여성적 나약함'과 같은 맥락에서 'caring angels', '백의의 천사' 등 지적·기술적 측면보다 자기 희생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형태였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의사의 동역자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조력자로 보여져 왔다(송인자 1993, Casey 1997, Takase et al, 2002). 이 같은 전통적 간호 이미지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원인으로서는 간호사의 외모, 복장, 태도, 전문적 지식, 전문적 기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내적요인과 병원조직구조, 행정절차, 텔레비전 드라마나 소설·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와 관련된 매체요인 등의 외적요인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간호계에서는 이 중에서도 TV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송인자 1993, 김복랑 등 1996, 양일심 1998, 김민정 2000). 결과적으로 일반대중들은 간호가 무엇이고 간호사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보다 대중매체나 언론보도 등 제 3자적인 시각으로 투영된 간호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영숙(1990)은 간호사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문제야말로 간호사가 더 좋은 자아상을 수립하고 더욱 독자적인 되며 전문적 실무의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간호계 내부에서 늘어난 학문적·기술적 성과가 거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간호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일반대중가운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가 전문직으로 명실공히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는 물론, 간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 보건의료전문인들, 또 간호의 수혜자인 일반대중들 간에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간호 이미지가 형성·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간호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 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차로,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과 보건정보연구센터(<http://www.richis.org/>)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간호 이미지', '간호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의 이미지', '간호사의 이미지' 등의 검색어를 주어 27개의 논문목록을 얻었으며, 이중 원본을 입수할 수 없었던 7편의 경우 논문초록을 입수하였으나, 논문초록이 가지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또 분석과정에서 연구도구나 연구방법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지 않은 논문 1편과 간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로 연구결과 부분에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확보할 수 없었던 연구 1편 등 2편의 연구를 추가로 제외시켜, 최종 18편의 논문이 분석되었다.

2.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이명하(1996)가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자신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각 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연도별 발표 논문의 수
- (2)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 (3) 논문 제목에 사용된 용어
- (4) 연구설계의 유형
- (5) 이론적 기틀, 용어정의의 유무
- (6) 연구대상자
- (7) 표본추출의 방법
- (8) 측정도구의 유형, 신뢰도 검사
- (9) 자료수집방법

- (10) 간호 이미지 관련요인
- (11) 관련변인의 분석
- (12) 후속연구의 제언

각 요소별로 해당자료의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해 제시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를 반올림해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도별 발표 논문의 수

연도 별 발표 논문의 수와 백분율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논문들 중 가장 발표연도가 빠른 것이 1992년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2001년이었다. 또 1996~2000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발표논문 수 (n=18)

연도	실수(%)
1991 ~ 1995	6(33.3)
1996 ~ 2000	9(50.0)
2001 ~ 2003	3(16.7)

2. 논문의 유형과 발표학술지

논문의 유형과 발표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이 전체 33.4%를 차지하였다. 이 중 박사학위 논문은 1편(5.6%)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석사학위 논문이었다(27.8%). 한편 비학위 논문이 전체의 6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한간호'에 발표된 경우와 교내학술지에 발표된 경우가 각각 16.7%로 가장 많았다.

<표 2> 논문의 유형별 발표 학술지 (n=18)

논문의 유형	구분	실수(%)
학위논문	석사	5(27.8)
	박사	1(5.6)
비학위논문	간호학회지	3(16.7)
	간호행정학회지	1(5.6)
	대한간호	3(16.7)
	한국보건학회지	1(5.6)
	한국가정간호학회지	1(5.6)
	교내학술지	3(16.7)

3. 논문제목에 사용된 용어

논문제목에 사용된 용어는 '간호사 이미지'가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간호 이미지'가 27.8%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5.6%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논문제목에 사용된 용어 (n=18)

제목에 사용된 용어	실수(%)
간호 이미지	5(27.8)
간호의 이미지	2(11.1)
간호사 이미지	8(44.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1(5.6)
전문간호이미지	2(11.1)

4. 연구설계의 유형

연구설계의 유형에서는 비실험연구가 61.2%로 가장 많았던 반면, 순수실험연구 및 유사실험, 원시실험 연구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실험연구중에서는 비교연구가 2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조사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동일하게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설계의 유형(n=18)

연구설계	실수(%)	
순수실험연구	0(0.0)	
유사실험연구	0(0.0)	
원시실험연구	0(0.0)	
비실험연구	조사연구	3(16.7)
	상관관계 연구	3(16.7)
	비교연구	5(27.8)
Q-방법연구	4(22.2)	
내용분석연구	3(16.7)	

5. 이론적 기틀, 가설, 용어정의

전체 18편의 연구 중 이론적 기틀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가설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도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모두 서술하고 있는 연구가 전체의 44.4%였으며, 용어정의를 없는 연구는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론적 기틀, 가설, 용어정의 (n=18)

특성	실수(%)	
이론적 기틀	있음	0(0.0)
	없음	11(61.1)
	기타*	7(38.9)
연구가설	있음	0(0.0)
	없음	11(61.1)
	기타*	7(38.9)
용어정의	이론적 정의 & 조작적 정의	8(44.4)
	없음	3(16.7)
	기타*	7(38.9)

*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6.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표 6>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내용 분석연구의 경우는 인간이 아닌 TV 드라마, 신문기사 등이 대상이 되었으므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Q-연구방법으로 행해진 연구의 경우는 P-sample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전체 4840명의 연구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3.1%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14.2%, 간호학생이 12.7%로 그 다음순위를 차지했다. 또 입원환자가 11.1%, 보호자가 2.0%, 그리고 '입원환자 및 보호자' 또는 '간호사 및 일반인'으로 연구대상자를

<표 6> 연구대상자* (n=4840)

대상자	실수(%)
간호사	689(14.2)
간호사 및 일반인	50(1.0)
의사	325(6.7)
입원환자	537(11.1)
보호자	95(2.0)
입원환자 및 보호자	358(7.4)
병원 일반직원(의사, 간호사 제외)	294(6.1)
초·중·고 학생	1119(23.1)
대학생(간호학과)	613(12.7)
대학생(비간호학과)	212(4.4)
일반인	152(3.1)
초등학교 학부형	84(1.7)
중학교 학부형	44(0.9)
고등학교 학부형	36(0.7)
교사	53(1.1)
방송인	50(1.0)
행정직 공무원	30(0.6)
법무 공무원	30(0.6)
가정간호대상자	69(1.4)

*내용분석연구(TV 드라마, 신문기사 내용분석)제외

서술해 두 구성요소를 분리해 볼 수 없었던 경우가 각각 7.4%, 1.0%이었으며, 가정간호대상자도 1.4%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는 6.7%,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병원직원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7.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방법을 확인한 결과 확률표출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논문은 1편(5.6%)이었으며, 55.6%의 논문이 비확률표출 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본추출방법 (n=18)

표출방법	실수(%)
확률표출	1(5.6)
비확률표출	10(55.6)
기타*	7(38.9)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8. 측정도구의 유형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50.0%는 연구자가 도구를 직접개발해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국내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인자(1993)가 개발한 도구의 경우, 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나 수정·보완해 사용한 경우를 합하면 22.3%의 연구가 이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사용한 도구들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표 8 > 측정도구 (n=18)

측정도구	실수(%)
송인자(1993) 도구	1(5.6)
NIS(Nurse Image Scale)	1(5.6)
장숙현(1998) 도구 수정·보완	1(5.6)
이향련 외(1992) 도구를 수정·보완	2(11.1)
송인자(1993) 도구를 수정·보완	3(16.7)
임거숙(1999)+장숙현(1998) +김희순(1996) 도구 복합	1(5.6)
연구자 직접개발*	9(50.0)

*Q-방법연구, 내용분석 연구포함

9.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경우 Q-방법연구나 내용 분석연구등을 제외하고는 모두(61.1%)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	실수(%)
설문지법	11(61.1)
면접법	0(0.0)
관찰법	0(0.0)
생리적 측정법	0(0.0)
기타*	6(38.9)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10. 간호 이미지 요인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이 문헌고찰 등을 통해서 간호 이미지의 획득원과 간호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 이미지 요인을 제시한 연구논문은 5편(24.8%) 뿐이었으며, 특히 요인분석방법을 통해 간호 이미지의 요인을 확인한 경우는 3편(16.7%)에 불과했다. 이들 연구와 이들 연구에서 규명된 간호 이미지의 요인이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간호 이미지 요인(n=5)

연구자(연구년도)	연구대상	추출방법/간호 이미지 요인
김복량, 김선희, 김옥숙, 남영화, 이길자, 정복래(1996)	· 간호학생 214+비간호학과 대학생 112명 ·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개방형 질문지	<설문결과를 연구자들이 분류 2개 요인, 각 21개 범주> · 긍정적 이미지 : 21개 범주 · 부정적 이미지 : 21개 범주
장숙현(1998)	· 환자 98+의사 73+일반인 92명 · 이향련 외(1992) 도구를 수정한 28문항	<요인분석으로 4개 요인> · 간호사 자질 · 간호사 역할 · 간호사의 사회참여 · 간호사의 대인관계
양일심(1998)	· 환자 97+보호자 95+일반인 164 ·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28문항	<요인분석으로 4개 요인> · 전통적 이미지 · 사회적 이미지 · 전문적 이미지 · 개인적 이미지
김문영(1999)	· 간호사 390명 · 이향련 외(1992) 도구를 수정·보완한 34 문항	<4개 요인*> · 전통적 이미지 · 사회적 이미지 · 전문적 이미지 · 직업적 이미지
김민정(2002)	· 가정간호대상자 69+입원환자 342 · 송인자(1993) 도구를 수정·보완한 31 문항	<요인분석으로 4개 요인> · 친절성 · 성실성 · 지식과 기술 · 정신적 영역

*요인 추출방법에 대한 설명 없음

11. 관련변인의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논문에서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으로 분석된 변인들을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구분하여 요약·제시하였다(<표 11>).

선행변인은 대상자 집단, 일반적 특성,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 간호사/병원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요약·제시하였으며 결과변인은 연구논문에 나타난 그대로 간호사 자질, 자아존중감, 간호 만족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연속변수인 경우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순상관관계나 역상관 관계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산형 변수인 경우는 차이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상관관계 검증이나 차이검증에서 관계없음 또는 차이 없음으로 나온 경우를 관계없음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해당변인이 본 연구분석 상에서 확인된 횟수를 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을 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일반인 등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연구들은 모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 중 대부분은 간호사가 가지는 간호 이미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표 11 간호 이미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n=10)

관련변인	순상관관계	역상관관계	집단차이	관계없음	계
선행변인 집단	간호사/의사/병원직원/일반인		1		1
	환자/보호자/일반인		1		1
	의사/환자/일반인		1		1
	가정간호대상자/입원환자		1		1
	방송인/교사/행정공무원/법무공무원		1		1
일반적 특성	성별		1	7	8
	연령		4	5	9
	성격		1		1
	학력		3	4	7
	종교		2	5	7
	결혼상태		1	6	7
	근무부서		1		1
	직업			3	3
	직위		1		2
	경력			1	1
환경적응		1		1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	본인의 입원경험		1	5	6
	가족의 입원경험			2	2
	면회경험			1	1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			3	3
	병원실습이나 봉사활동 경험		1		1
	TV, 영화 등 영상매체		1	2	3
	서적		1	2	3
	인론보도		3	1	4
	간호 이미지 획득원		2	3	5
	입원했던 병원의 형태			3	3
간호사/병원 관련 변인	간호사 복잡형태		1		1
	간호사·조무사 구별능력		2	3	5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		1		1
결과변인 간호사 자질		1		1	
자아존중감		1		1	
간호 만족도		2		2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조사연구제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 이미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분석된 변인은 연령이며, 성별이 그 다음 순위, 그리고 학력, 종교, 결혼상태 등이 같은 빈도로 다음 순위를 점했다.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에 속한 변인의 경우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보다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이 더 많았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간호 이미지의 획득원으로 예상되어 반복적으로 분석되어 온 '본인의 입원경험'이나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간호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간호나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를 들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간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변인으로 설정된 간호사 자질, 자아존중감, 간호 만족도 등의 변인에 대해서는 해당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1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88.9%가 제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n=18)

후속연구의 제언	실수(%)
있음	16(88.9)
없음	2(11.1)

V. 논 의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발표된 간호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수집한 결과 18편의 연구논문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논문들 중 가장 발표연도가 빠른 것이 1992년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2001년이었다. 이는 국내최초 간호학 순수학술지인 '간호학회지'가 1970년대에 창간되어 올해로 3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간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발표된 논문의 총수도 본 연구가 원문을 수집할 수 있었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만도 총 598편(최경숙 외 2000)인 것을 생각하면, 간호가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 간호 이미지 개념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 할만한 경험적 자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이 학위논문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은 단 한편뿐이고 모두 석사학위 논문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박사학위논문 수준에서 이루어져 간호 이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논문제목으로는 '간호 이미지', '간호의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문 간호이미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일상생활과 달리 오해나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김문실 외 2000). 따라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본 연구에 일괄 포함해 분석하는 것은 일견 연구방법론상의 오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호 이미지가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Kotler & Clarke 1987, 윤은자 1995)이라는 것과, 각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목에 포함된 용어 이외에도 전문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문초록에 간호 이미지를 표현하는 영문용어로 'Image of Nursing', 'Image of Nurses', 'Nursing Image' 등이 국문제목에 따른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고, 특히 각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혼용됨은 물

론, 도구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가장 많이 사용된 '간호사 이미지'의 경우 해당개념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현한 장점이 있으나, 간호 이미지라는 용어가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간호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어떤 생각이 교환되는 것의 효과성과 정확성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에 관한 합의, 그 개념의 성질에 관한 합의의 정도에 의존하므로(김문실 외 2000) 향후 이들 개념에 대한 간호학자들의 구분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순수실험연구 및 유사실험, 원시실험 연구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간호학회지에 발표된 실험연구가 전체 연구의 1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온 최경숙 등(2000)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비율이며,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논문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연구 중 실험연구는 4.4%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이은옥 등(1992)의 연구와 비교해도 낮은 비율이다. 또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논문 55편을 분석한 이명하(1996)의 연구에서도 실험연구가 단 1편(1.8%)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험연구가 단 한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실험연구가 한편도 없는 이유로는, 처음 국내에서 간호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10년여의 기간동안 간호 이미지가 무엇이며 어떤 요인들의 영향으로 형성되는지, 또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는 상당부분 밝혀졌으나 이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다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 낼 것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들은 전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보다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과 이 전략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논문들 중, 이론적 기틀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도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기틀이 꼭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질적 연구를 제외한다

면, 1990년대 연구의 대부분이 이론적 기틀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 최경숙 등(2000)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론적 기틀은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간호학이나 타학문의 이론적 지식체를 연구문제와 연결시켜 보여줌을 통해, 연구에서 어떤 현상이 더 기술되어야 할지, 어떤 개념간의 연결이 더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지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김문실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이미지에 관한 국내논문들이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간호학내의 이론이나 타학문분야의 이론적 지식체와 잘 연결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가설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도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1983~1990년까지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김영경(1995)의 연구에서 37.8%가 연구가설이 없는 논문이라고 한 결과나, 1979-1995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이명하(1996)의 연구에서 연구가설이 없는 논문이 전체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가설의 형태로 바꾸고 설정된 가설을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가설을 지지 또는 기각함으로써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김문실 외 2000)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중 44.5%가 상관관계 연구 또는 비교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한 논문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또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중 16.7%의 연구가 용어정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어정의가 없는 연구가 전체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명하(1996)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다. 과학적 연구에서 용어정의의 기능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학자나 그 메시지를 해석·이해하는 연구독자가 같은 의미로 동의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해나 모호함이 없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개념의 의사소통이 그 목적인 이론적 정의는 물론, 직접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적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김문실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중 16.7%는 해당 연구결과를 연구독자들과 의사소통함에 있어 오해나 모호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확률표출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논문은 전체의

5.6%, 단 1편이었으며, 55.6%의 논문이 비확률표출 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 확률표출을 실시한 논문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명하(199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모집단과 가장 닮은 표본을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처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인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법이 확률표출이다. 한편 비확률표출은 간단하고 쉬운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방법이다(김문실 등 2000). 즉,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대부분이 비확률 표출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표본의 대표성과 나아가 연구결과와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확률표출로 표본을 구성한 간호 이미지 연구가 보다 많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는 물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해서도 그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경우가 50.0%였고, 나머지 50.0%의 경우는 6가지 정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하(1996) 연구결과에서 연구도구를 직접 개발해 사용한 연구가 34.5%였던 것과 비교해 볼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또 단 1편(5.6%)의 연구만이 외국도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국내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도구의 경우, 전술했던 대로 서로 다른 도구의 경우에도 도구에 포함된 문항들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도구개발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도구의 타당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개념을 측정하는데 어떤 도구를 선택하였는지는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정확성을 판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따져보는 것이다(김문실 등 2000).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중 3개 연구(16.7%)만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외 액면타당도, 내용타당도, 준거지향타당도 개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또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측정도구를 적용할 표본,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까닭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연구마다 신뢰도 계수를 새로 확인하고 도구가 개발당시의 신뢰도 계수와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해당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를 각각 표시하여야 함(김문실 등 2000)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비교적 잘 서술 되어 있는 반면, 도구개발당시의 신뢰도나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의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경우 61.1%가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각각 65.1%, 96.4%의 비율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홍명선(1993), 이명하(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지난 30년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라는 최경숙 등(200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간호 이미지라는 정신·심리적인 변수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구대상자의 자가보고법임과, 설문지법이 자가보고법의 또 다른 자료수집 형태인 면담보다 단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생각할 때, 향후에는 다른 종류의 자료수집방법을 이용한 연구나, 다른 종류의 자료수집법 한 가지 이상과 상호보완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중 5편(24.8%)만이 간호 이미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도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간호 이미지의 요인을 확인한 경우는 3편(16.7%)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간호 이미지 요인' 중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요인이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 2 차례 반복되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모두 이향련 외(1992)가 개발한 연구도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문적 이미지'는 송인자(1993)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요인 분석한 결과 도출된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요인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용어는 다르지만 요인을 구성하는 도구의 문항으로 미루어 볼 때, '지식과 기술'과 '전문적 이미지'처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5개의 연구들이 간호 이미지 요인을 추출한 방법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는 요인을 추출한 방법을 서술하지 않았거나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에 제시된 각 요인들을 통합·재범주화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술했던 대로 각 도구들마다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각 도구들을 비교·분석

하여 공통되는 문항과 각 도구별로 특징 있는 문항들을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간호 이미지의 요인을 찾아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논문들의 경우 간호 이미지를 선행변인으로 다룬 경우도 있었고, 결과변인으로 다룬 경우도 있었다. 선행변인은 대상자 집단, 일반적 특성,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 간호사/병원 관련 변인 등이었으며 결과변인은 간호사 자결, 자아존중감, 간호 만족도 등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을 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일반인 등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들은 모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 중 대부분은 간호사가 가지는 간호 이미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중이 가지는 간호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당 부분 축소·왜곡되어 있다고 한 선행연구자의 주장(정면숙, 강연실 1993, 임미림 1995, 양일심 1998)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 이미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분석된 변인은 연령이었으며, 집단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연구와 집단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의 비율이 거의 같고, 성별의 경우나 결혼상태의 경우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변인 없이 이들 일반적 특성만을 간호 이미지 관련변인으로 설정해 분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에 속한 변인의 경우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보다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이 더 많았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간호 이미지의 획득원으로 예상되어 반복적으로 분석되어 온 '본인의 입원경험'이나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간호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간호나 간호사 관련 언론보도를 들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간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 중 TV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던 송인자(1993)의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언론보도 역시 대부분의 대중이 TV를 통해 접하게 되지만, 연구논문들에서 '언론보도'와 'TV, 영화 등의 영상매체'를 각기 다른 변인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대중은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실제세계, 실제상황을 보고하는 언론보도를 통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간호 이미지와 간호사 자질, 자아존중감, 간호만족도간에는 해당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바람직한 간호 이미지 개발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에 대해 그들이 만족함과 동시에 전문직 간호인 또한 직업적 만족을 얻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윤은자(199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대로 기존의 간호 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은 간호 이미지의 선행요인을 밝히려 한 연구나 특정 대상자 집단간의 간호 이미지 차이를 밝히려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 이미지의 결과변인을 밝히고 간호 이미지와의 관계를 분석함을 통해 간호 이미지가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대부분(88.9%)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어 65.5%의 연구가 제언을 포함했다는 이명하(1996)의 연구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선배연구자들의 제언은 후배연구자들이 연구를 계획·시행할 때 좀 더 구체적이 되기 위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다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도와준다(김문실 외 2000).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연구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이미지에 대한 논문을 분석함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요약·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논문 18편을 수집한 후 이명하(1996)가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분석기준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92년에 처음 시도된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분야로 적은 수이기는 하나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다.
2. 논문의 유형은 비학위 논문이 66.6%로 33.4%를

집한 학위논문의 거의 2배 비율이었다.

3. 논문제목에 사용된 용어는 '간호사 이미지'가 44.4%로 가장 많았으나 비슷한 용어들이 개념의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설계의 유형은 비실험 연구가 61.2%로 가장 많았다.
5.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연구, 또 연구가설을 제시한 연구도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7%의 연구가 용어정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6. 연구대상자로는 초·중·고등학생이 23.1%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14.2%, 12.7%로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표본추출방법에서는 단 한편의 연구(5.6%)만이 확률표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55.6%의 연구가 비확률표출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측정도구의 유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도구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가 50.0%로 나타났고, 한편(5.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경우 Q-방법연구나, 내용분석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간호 이미지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전체의 27.8%이었으며, 이 중 요인분석을 통해 간호 이미지를 추출한 연구는 3편(16.7%)으로 모두 4개의 간호 이미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1. 간호 이미지 관련변인 중 선행변인으로는 집단, 일반적 특성, 간호/간호사를 접한 경험, 간호사/병원 관련 변인 등이 분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을 제외하고는 특정변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 결과변인으로 설정된 간호사자질, 자아존중감, 간호만족도 등은 모두 간호 이미지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대부분의 연구(88.9%)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호 이미지를 포함해 간호 이미지와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개념분석연구가 필요하다.
2. 이상적인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을

- 마련하고 이 전략을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 이미지 요인을 추출해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논문의 양적인 평가와 더불어 질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논문 분석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Casey, N. (1997). The image of nurses as "caring angels". *Nursing Standard*, 11(38), 1.

Kalisch, P. Kalisch, B. (1987).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Menlo Park : CA. Addison-Wesley Public Co.

Kotler, P. & Clarke, R. N.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Medez, D. & Louis, M. (1991). College student'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Takase, M., Kershaw, E., & Burt, L. (2002).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8(4), 196-205.

김문실, 김정아, 박현태 (2000). 초심자를 위한 간호 연구방법론 : 서울. 도서출판 정담.

김영경 (1995). 국내 간호연구의 동향분석-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지산간호전문대학논문집*, 13, 21-43.

이경희, 박청자 (1994). 대구시내 정신과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확대의지에 대한 조사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28-34.

이명하 (1996).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분석. *성인간호학회지*, 8(1), 180-200.

이영숙 (199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0(2), 249-270.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2(3), 271-296.

이향련 외 5인 (1992).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15, 45-65.

전준영 (1993). 간호 이미지 향상 전략 방안-간호부서의 활동계획과 실시 및 평가. *대한간호*, 32(2), 43-50.

최경숙, 송미순, 황애란, 김경희, 정명실, 신성례, 김남초 (2000). 대한간호학회지 논문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창간호에서 1999년도까지-. *대한간호학회지*, 30(5), 1207-1218.

허금희, 이병숙 (1999).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조사. *보건행정학회지*, 9(2), 157-173.

양일삼 (1998).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4(2), 289-306.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간호과학*, 7, 64-83.

분 석 논 문

Park, K. A. & Song, M. R. (2001).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대한간호학회지*, 31(4), 584-597.

강혜영, 김미선, 김정효, 김혜숙, 박미화, 박영주, 송남호, 이난희, 전효경 (2001). 일 지역의 간호사 이미지 조사연구-교사, 방송인, 법무 및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간호과학논집*, 6(1), 109-124.

김문영 (1999).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00). 일 지역 일반인과 대학생의 간호 이미지와 간호사 자질에 관한 조사. *경북간호과학지*, 4(2), 51-63.

김복량, 김선희, 김옥숙, 남영화, 이길자, 정복례 (1996).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대한간호*, 35(4), 75-91.

김조자, 이원희, 허혜경, 김창희, 홍성경 (1993). 간호사의 목장형태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4), 631-648.

문영임, 임미림, 윤경이 (1998). 텔레비전 드라마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분석. *대한간호*, 37(2), 44-52.

박성애, 엄영란, 정면숙, 정순영, 최경숙 (1992).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 Q 방법론 적용. *간호학논문집*, 6(1), 13-23.

송인자 (1993). 간호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

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2(2), 51-62.

- 양일심 (1998).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 (2000). 간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호전문직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유형.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1), 80-99.
- 용진선, 한성숙, 유인자, 홍현자 (2002). 가정간호대상자와 입원간호대상자의 간호만족도 및 간호사 이미지 비교. *한국가정간호학회지*, 9(1), 14-25.
- 윤은자 (1996). 간호사의 전문간호 이미지 유형에 관한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간호행정학회지*, 2(2), 17-42.
- 이명하 (1996).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8(1), 180-200.
-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전경자, 김주현, 박재순, 이병숙, 정면숙 (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 논문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2(3), 271-296.
-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숙현 (1998).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면숙, 강영실 (1993).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1), 16-28.
- 허금희 (1992).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조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자 (1995).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 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명선 (1993). 국내 간호학술지를 통해 본 간호연구의 동향. *최신의학*, 36(9), 97-104.

Kim, Jung A* · Lee, Soon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summarize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on image of nurses performed in Korea and to get the preliminary data for future research. **Method:** This study queried 18 Korean studies performed from 1990 to 2002, selected by two online databases surfing. The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several standards Lee, Myung Ha(1996) suggested in her study. **Result:** (1) The first study on image of nursing performed at 1992. (2) 33.4%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 thesis for a degree, 61.2% hired non-experimental research design, and only 5.6% selected study sample by simple random sampling. (3) Almost studies used the research instruments developed by Korean nursing scientist and collected research data with questionnaires. (4) The variety variabl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the variables. (5) 88.9%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include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Conclusion:**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mmarized and strategic planning for future study on image of nurs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mage of nurses

- Abstract -

Analysis of Studies on Image of the Nurses Performed in Korea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ju Nation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